

서둘러야 할 농업공학의 구조개선

안 재 숙

〈한국농지개발연구소 이사장〉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세계적인 관심은 세가지 라운드(Round)에 집중되어 있다. 즉 우루과이 라운드(UR)와 테크노 라운드(TR), 그리고 그린 라운드(GR)이다. UR은 상품중심의 교역 질서 즉 선진국 중심의 무역질서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TR은 기술을 중심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질서화 한다는 것이고, GR은 UR, TR에 환경을 결부시켜 환경에 유해한 상품교역을 제한 하자는 것으로, 상품의 생산과정이나 환경에 비친화적인 경우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GR은 지구촌 단위의 관심사로서 탄산가스나 메탄가스 등에 의한 온실효과와 인공화학 물질인 프레온 등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에 대처하려는 인류공존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우리에게서 지난 '93년 말부터 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가지 대응책 마련이 비상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절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후반이래 오랜 숙원이었던 주곡 자급이 달성되기는 하였으나, 도농간의 소득 및 생활 환경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업과 농촌은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했고, 이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이었다. 즉, 농지위주의 개발에서 농촌생활환경의 정비를 망라한 농촌공간의 종합개발로 전환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은 이들 계획을 수립하는 플래너(Planner)의 주체와 역할 문제이다. 이 때까지 농지를 주축으로 한 것이었으나, 여기에 농촌생활환경개선 이라는 보다 다양한 지역특성이 가미된 농촌공간개발의 영역에 들어서고 보니 각종 개발인자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상하고 엮어내야 하는 플래너의 자질과 역할은 비길데 없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농촌공간은 농지와 생활기반을 일체로 한 다양하고 조화된 토지 이용계획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인 즉, 이에는 주민과 플래너, 그리고 행정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그 주도적인 역할은 곧 플래너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농업공학이 이 플래너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범위한 소양과 기법 및 정보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개발대상지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이에 상응한 개발기법을 창출한다는 것은 곧 농업공학의 영역을 넓혀 농촌공학으로 구조적인 개선 내지 변신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 UR에 대응한 농지정비의 대대적인 양적·질적 확대개발 또는 대구획화 재정비사업이나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단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앞으로 그린투어리즘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농촌경관정비사업은 앞에서 기술한 UR, TR, GR을 함께 수용한 농촌공학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전문분업적인 기법의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농업공학을 익혀온 농공인의 슬기가 모아지고 다함께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때 농촌공학의 새로운 뿌리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